

세계적 희귀생물 물거미 보호 나서

한탄강지킴이운동본부,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세계적인 희귀 생물인 물거미 서식지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가 직접 나섰다.

한탄강지킴이운동본부(상임본부장 최주영)와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대표 이석우)회원 20여명은 지난 20일 천연기념물 제412호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물거미 서식지 보호를 위해 서식지 일대에서 단종요폐지풀 제거작업과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한탄강 수계 하천모니터링과 생태조사를 하고 있는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와 한탄강지킴이운동 본부는 물거미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습지모니터링과 생태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이석우 대표는 "많은 탐방객들이 물거미 서식지를 찾는데 이 곳에서는 사실상 보여줄 것이 없다"며, "탐방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과 물거미의 생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영상교육시설이 갖추어 진다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



세계적인 희귀 생물인 물거미서식지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가 직접 나섰다.

객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물거미는 2000년대 들어 농업용수 사용 등으로 은대리 습지 면적이 10만㎡에서 절반으로 줄어들고, 서식지 일대가 생활쓰레기로 뒤덮이면서 멸종 위기에 처했다.

문화재청과 연천군은 서식지 일대에 2003년 7천여만원을 들여 전곡읍 은대리 693-18일대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며 안내관과 습지경계지역 600m구간에 물거미 서식지 보호책을 설치했으나 최근 습지주변에 유해식물인 단풍잎돼지풀과 갈대군락이 잡식해 물거미 서식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1과 1속 1종만 존재하는 희귀종인 물거미는 북유럽 등

지에 서식하며 아시아에서는 1930~49년 일본 교토와 홋카이도 지역에서 확인된 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99년 9월 연천군 은대리에서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습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습지 물속에서 1년만 사는 물거미는 몸이 난 털을 이용해 수면에 지름 2cm의 은백색 공기주머니(집)를 만든 뒤 이를 배에 붙이고 다니면서 호흡하며 수초사이에 처놓은 거미줄로 장구벌레 등 먹이를 사냥한다.

물거미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어 학술적으로 가치가 매우 크며 조망, 섭식, 짝짓기, 산란, 발생, 성장 등의 전 생애를 물속에서 보내며,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는 현재 중앙에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와 군부대 훈련장이 있으며, 서식지 주변으로는 농로가 개설되어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적극적인 민원 처리 행정 신뢰도 제고

연천군, 민원업무 위원회 통폐합 효율성 높여

연천군은 민원행정 분야에서 중부적인 부분을 통합 조정하고 고도의 입장에서 민원업무 추진하고자 민원 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3step 실천운동 등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어 민원행정의 효율과 고객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민원업무 위원회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9월24일 밝혔다.

연천군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성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5인)·민원조정위원회(11인)·행정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9인)를 '민원행정서비스 조정위원회(11인)'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3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위원들의 임기는 보장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통폐합되는 위원회의 명칭은 '민원행정서비스 조정위원회(11인)'로 민원제도개선사항 심의(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기능), 불가 고충민원 조정(민원조정위원회 기능),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민원조정위원회 기능), 장기 미해결 민원·반복 다



수인 관련 민원해소 및 방지대책 심의 등(민원조정위원회 기능)·행정정보공개심의(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능)·행정서비스현장 재개심 의(행정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 등 민원 전반을 대상으로 심의한다.

연천군은 "위원회 준비를 마무리할 때까지 월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여는 등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부작용 없는 폐지 및 통폐합을 이룰 계획이며, 통폐합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행정의 신뢰도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1달러의 기쁨 1만원의 행복

동두천시 10월4일 천사데이 행사

산악 걷기 대회와 천사의 도시 동두천에서 가족과 함께 가을의 향기를 마시며 달려 보자.

동두천에서는 천사의 날개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 지난 8월 동두천 탐동 일원에서 제2회 동두천시장애 왕방산 켈리저전국 MTB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동두천시에서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오는 9월28일 오전9시30분에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에서 건국 60주년 세계천만명걷기대회 2008경기도사랑 산악걷기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의 참가비는 워너워나 해도 지구촌 아동들이 유니세프 '1달러' 모금행사이다. 초등학생 하루 과자값인 1달러의 의미는 버마 난민들에게는 다섯 가족의 일주일 치 쌀을 살 수 있는 충격적 기쁨을 되새기며 전세계 불우아동을 돕는 행사이다.

이날 걷기 대회는 오전 10시 동두천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며 여등산→광대목장→석목고→괘암삼거리→부처초개를 거쳐 종합운동으로 되돌아오는 5.7km 코스이며, 대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지구촌 완주기념

품 및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또 다른 행사는 연인들끼리 사랑과 초코렛을 주고받는 국적 불명의 정처 없는 발렌타인·화이트 데이 등의 상술에 돈을 쓰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눈을 뜨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2002년 3월 종교, 나이, 직업을 떠나 동두천에서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한뜻이 되어 우리나라, 전세계 최초로 시작해서 만들어져 지금은 전국적으로 개최되어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의 천사로 자라매김하고 있는 천사데이 행사이다.

특히, 오는 2008년 10월4일 오후 1시에 개최되는 천사데이 행사는 KBS1 방송을 통해 전국에 천사데이의 의미를 전달하는 '감성 나눔 1004 데이'를 생방송으로 방송한다. 6회 짝을 맞는 이날 마라톤 대회에는 10.04km와 5km 부분이 각각 진행되며,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 등 마라톤에 참가하기 힘든 천사들을 위해 5km 걷기 대회와 유아를 위한 104m 달리기로 진행되어 남녀노소를 망라해 동참하길 원하는 모든 천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양주를 첨단 명품도시(u-City)로 건설

양주시 토공, 주공과 명품도시 건설 협약

양주시가 u-City 건설사업 시행자와 협력관계 촉진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 양주 신도시의 유비쿼터스도시(u-City)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양주시는 9월24일 시청 상회실에서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양주신도시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u-City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협력관계 촉진의 협약을 체결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양주신도시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사업 시행자와의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u-City 건설 사업에 따라 양주신도시를 최첨단 정보 인프라를 갖춘 최첨단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양주시 전 지역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신도시의 첨단산업, 교육·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수도권 북부 지역의 거점 도시로서, 또한 자연과 인간이



양주시가 u-City 건설사업 시행자와의 협력관계 촉진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 양주 신도시의 유비쿼터스도시(u-City)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공존하는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로 건설 할 계획으로 1,142만㎡ 면적에 5만9천여 주택(수용인구 16만여명)을 공급할 예정이며 복선 전철화 된 경원선 철도가 신도시를 관통하고 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양주시에는 서울~포천간고속도

로, 제2의곽순환도로, 국지도39호선(송추~동두천) 확포장, 송추~우이간 도로, 남면 홍죽·봉양·봉양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광역교통망의 확충에 따른 서울도심 접근성과 자족성이 더욱 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건강한 숲 우리 손으로 지키다

산사랑 운동 캠페인 전국적으로 전개

아름다운 산과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으로 남기고자 양주시 양주2동 주민들이 양산에 모래주머니를 들고 산에 오르는 산사랑 운동 캠페인 전개해 청정산을 포함한 원주 도약산 등 산사랑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9월21일 양주시 삼송동 소재 천보산 일주에는 양주시 양주2동 주민자치위원회, 시니어비전추진위원회, 양주2동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천보산악회, 노인보호회, 통장협의회 등 각 사회단체 회원 및 주민들이 모여 '산으로 흠 나르기 운동' 캠페인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개최된 '산으로 흠 나르기 운동' 캠페인의 주목적은 매일 산에 오르는 주민 및 등산객들이 2kg의 흙이 담겨 있는 흙 자루를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간 후 흠하게 훼손돼 드러나 있는 나무뿌리에 골고루 뿌려주는 취지로 양주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안종섭)와 시니어비전추진위원회(간사 장정민)가 주최, 주관 관내 9개 단체 회원 및 주민 등 4백여명이 참석해

산사랑 운동의 불을 당겼다.

또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산의 원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심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산을 위한 문예작품 대회 등으로 산을 재인식 하자"며 푸르른 산, 건강한 숲 가꾸기 조성에 많은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산사랑 운동 캠페인에 참석한 임춘민 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민간단체 및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벌여 나갈 줄은 몰랐더라 푸르른 산, 건강한 숲 가꾸기에 순수하게 움직이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니어비전추진위원회와 함께 이번 1차 50t의 흙을 시작으로 2, 3차에 걸쳐 지속적인 산사랑 운동을 펼쳐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9월21일 양주시 삼송동 소재 천보산 일주에는 각 사회단체 회원 및 주민들이 모여 '산으로 흠 나르기 운동' 캠페인 선언식을 가졌다.

양질의 한방약재를 먹여 사육한 멧돼지를 취급하는 청정정육점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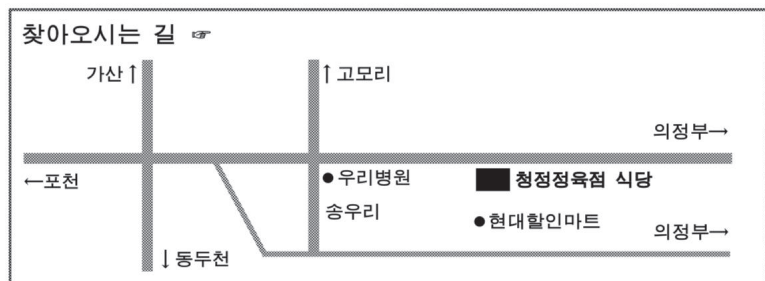
■ 멧돼지 효능

1. (다른 육류에 비해) 체내 콜레스테롤 축적이 적고, 혈압 상승, 비만의 가능성이 적다.
2. 피부를 윤택하고 탄력있게 해준다.
3. 대장과 소화기관의 어혈을 다스리고, 변비를 방지하며 오장을 다스린다.
4. 진폐증, 규폐증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5. 체내의 노폐물을 잘 배출시키고 질병에 대한 면역기능을 강화한다.

★예약전화★ ☎031-543-8215

청정정육점 식당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현대할인마트 주차장 뒤(대로변 옆)



- 멧돼지**
- 흑돼지**
- 삼겹살**

- * 삼겹살(200g) : 5,000원
- * 흑돼지 삼겹살(200g) : 7,000원
- * 멧돼지 삼겹살(200g) : 8,000원
- * 김치찌개(1인 기준) : 4,000원
- * 김치찌개 전골(2인 기준) : 10,000원